

고등학교로의 진학 과정(school transition)에서 학교적응 변화 :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조미형* · 이정은*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진학과정에서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차함수모형을 이용한 종단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중2 패널 1, 2, 3, 4차년도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중2에서 중3으로 학령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적응점수가 증가하지만 변화율이 감소하여 고1을 지나면서 학교적응점수가 감소하는 역U자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2시점에는 부모·교사·또래와의 관계 모두가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후 변화율에는 학령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와의 관계와 또래와의 관계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한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학교적응이 전 시기에 있어서 높을 뿐만 아니라 학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학교적응이 높지만 학령 증가에 따른 변화의 양상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고등학교 진학으로 달라진 환경에서 청소년들의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주제어 : 학교적응, 진학, 청소년, 사회적 관계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I. 서 론

청소년들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사회적 관계 또한 대체로 학교 범위 내에 한정되기 때문에 학교생활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흥미를 가지고 잘 적응하는지는 일상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진학이나 직업선택, 사회적 관계 등 사회생활에서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비행이나 일탈행동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학교중퇴라는 극단적인 형태의 사회문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학교적응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다.

중학생 시기는 각종 학교관련 스트레스와 함께 학교적응의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규미, 2005)이다. 아동발달백서 2001(한국아동학회·한솔교육문화연구원, 2002)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66.2%가 공부, 장래, 친구관계 및 진학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특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청소년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교사와 친구들과의 관계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경험하는 달라진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졸업 후에 성공적으로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학업성적이나 시험에 대한 중압감이 커지고, 부모나 교사의 성적에 대한 과도한 기대, 또래들 간의 경쟁적 관계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 수준은 높아지고 학교적응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은식(2005)의 연구결과에서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전반적인 학교적응 정도가 낮게 나타난 바 있다.

외국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한 학교적응 문제는 제한적이지만, 자주 등장하는 연구 주제이다(Eccles et al., 1993; Alspaugh, 1998; Chung et al., 1998; Mizelle & Irvin, 2000). 이러한 연구들은 상급학교 진학 이후 나타나는 학업동기, 출석률, 성적 저하, 학업 중단과 같은 부적응의 양상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학교진학에 따른 부적응과 관련된 변인으로써 부모의 지지, 친구와의 관계 등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학교적응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종단적 연구는 드물고, 특히 청소년의 학교적응 변화 패턴을 상급 학교 진학 등 학교진학과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전무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국내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고등학교로의 진학과정에서 학교적응 변화를 살펴보고 학교적응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종단적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이 증가하면서 학교적응은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과정에서 학교적응은 다른 양상을 보이는가?

둘째, 사회적 관계(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가 학교적응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문헌고찰

1. 학교적응의 개념

학교 적응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에서 학교적응 개념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방식은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다. 래드(Ladd, 1990)는 학교에 대한 지각, 학교활동 참여, 학업관련 실천 결과의 세 가지 차원으로 학교적응을 설명하고 있다. 송운용·곽수란(2006)은 학교에 대한 흥미, 학업성취 태도, 학교 규범준수 태도 및 실태, 학업성적, 부적응 행동을 측정하였다. 한편 정규석(2004)은 전반적 적응도와 학업적 적응도로 구분하고, 학교 생활 만족도, 성적 등으로 측정하였다. 문은식(2006)은 선행연구(Baker & Siryk, 1984; Birch & Ladd, 1997)에 기초하여 학업 적응, 사회적 적응, 정의적 적응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출석률(Dubois et al., 1994; Carlson et al., 1999), 학업성적(Berndt & Keefe, 1995; Berndt & Mekos, 1995; Kurdek & Sindair, 1998), 교사의 평정점수(Berndt & Mekos, 1995; Bronstein et al., 1996) 등으로 학교적응수준을 측정한 연구들도 있다.

이상과 같이 관련 문헌들에서 사용된 학교적응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하위 차원을 포함한 개념으로 보고 조작화한 하위 차원을 측정하거나, 관련 지표들을 대리변수로 이용하여 학교적응수준을 측정하고 있다(이규미, 2005).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하위 차원별 측정 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청소년

의 학교적응 패턴은 각 하위 영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각 영역별로 영향을 미치는 설명요인들이 다를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유안진 외, 2004; Woolly & Grogan-Kaylor, 2006). 울리와 그로겐테일러(Woolly & Grogan-Kaylor, 2006)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의 하위 영역을 전반적인 학교생활에서 문제행동으로 나타나는 부적응으로부터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그리고 학업성취에 이르는 부적응에서 적응에 이르는 연속선상의 발달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와 유사하게, 학교청소년들은 학업성취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하는 학교적응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연속선상의 학교적응 개념을 사용한 연구들에서 가족 및 학교요인들이 문제행동-학교생활흥미-학업성취에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Woolly & Grogan-Kaylor, 2006; 이정은·조미형, 2007).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부적응에서 적응에 이르는 연속선상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학교진학 과정에서 학교적응의 변화 양상에 보다 초점을 두었기에 다양한 하위 영역 중에서 연속선상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학교생활흥미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것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는 그 자체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단계를 토대로 이후의 학업성취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생활흥미를 일반적인 학교적응 연구에서 사용하는 학교적응의 개념정의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2. 학교진학과과정에서 나타나는 학교적응의 문제

학생들은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이후 중학교 진학, 고등학교 진학, 대학교 진학이나 직장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전이과정(transition)을 경험하게 된다(Schumacher, 1998). 새로운 학교체계로 옮겨가는 것은 청소년들의 생활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이자(Brown, 1990), 일종의 잠재적인 스트레스 사건이 된다(Hirsh & DuBois, 1992). 물리적 환경의 변화, 교사 및 또래집단의 변화, 학업에 대한 기대의 증가로 인해 새로운 학교에서 경험하게 되는 관계유형과 사회적 상황은 청소년들이 적응해야 할 도전적인 과업이다(Scheridan et al., 2003).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예전 또래집단이나 친구를 잃는 스트레스와 새로운 또래집단을 형성하는데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학교진학이라

는 전환시기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Brown, 1990).

학교진학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Simmons et al., 1973, 1979; Blyth et al., 1983; Isakson & Jarvis, 1999 재인용; Blyth et al., 1978; Simmons & Blyth, 1987). 중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결과들을 보고하였다. 사회활동적인 측면에서 학교 활동에의 참여는 감소하고, 익명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lyth et al., 1978), 심리적인 측면에서 자아존중감이 저하되고(Wigfield et al., 1991; Eccles, et al., 1993), 심리적 스트레스는 증가하였다(Chung et al., 1998). 또한 학업에 있어서도 학업동기가 저하되고(Anderman et al., 1999), 성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Alspaugh, 1998).

고등학교로의 진학과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중학교로의 진학과 유사한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고등학교 진학 후 출석률이 저하되고(Felner et al., 1981; Barone, et al., 1991; Isakson & Jarvis, 1999), 학업동기가 감소하고(Eccles et al., 1998), 성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elner et al., 1981; Blyth et al., 1983; Barone, et al., 1991; Alspaugh, 1998; Isakson & Jarvis, 1999). 이러한 부적응은 학업중단 또는 유급(Mizelle & Irvin, 2000)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교진학과정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학교적응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학교진학 문제를 경험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원만한 사회적 관계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학교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받는 청소년들은 학교에 대해 만족감이 더 높고 불안감을 덜 느끼며 고등학교 환경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된 과업을 잘 다루도록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Barone et al., 1991). 펠트너 외(Felner, et al., 1981)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를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학업성적, 출석율, 자아개념 및 학교에 대한 긍정적 시각 등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의 영향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와 또래와의 관계 중 어느 쪽

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서로 다른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우선,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성인기로 나아가면서 가족에 대한 의존이 감소하고 또래의 영향력이 더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Hess & Copeland, 1997; Isakson & Jarvis, 1999 재인용) 또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청소년의 고등학교 진학에 따른 적응에 대한 종단연구(Isakson & Jarvis, 1999)에 의하면, 학교 진학에 따라 학교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가족, 학교 또는 친구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진학으로 인한 또래 미시체계의 변화는 학업 준비 및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eidman et al., 1994). 한편, 가족은 아동기에 지지의 주된 원천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부모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이 여전히 중요한 시기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가 있다(Isakson & Jarvis, 1999). 청소년들이 친구보다 부모가 그들의 학교생활의 태도나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Berndt et al., 1989), 또한 친구보다는 부모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이 청소년의 태도, 소속감, 학업성취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rndt et al., 1989; Isakson & Jarvis, 1999).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적 관계 변인으로 교사와의 관계를 꼽고 있으며(정규석, 2004; 문은식, 2005), 교사와의 관계는 비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아·정현희, 1999).

원만한 사회적 관계 형성 외에도 성별, 이전의 문제행동, 이전의 낮은 학업성적 및 학업준비 부족 등이 학교진학과정에서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특성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학생들의 경우 대체로 또래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학교진학시 기존 친구관계망의 붕괴와 같은 환경 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immons & Blyth, 1987). 이전에 문제행동을 보였던 청소년들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면서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Berndt & Mekos, 1995), 상급학교의 학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진학한 후에도 학업성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cott et al., 1995; Anderson et al., 2000). 또한 학교에 다니는 또래의 수(Schiller, 1999), 교사의 질(Lankford et al., 2002), 진학지원 프로그램 유무(Smith, 1997)와 같은 학교구조의 측면 또한 학교진학과정을 돕고 그에 따른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mith, 2006).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의 중 2패널 1-4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03년도 기준 전국(제주도 제외)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 중 표본으로 뽑힌 3,697명의 청소년들 및 그 부모를 대상으로 추적조사하고 있는 종단적 패널 데이터이다. 1차년도 총 응답자는 3,449명이었고, 이 중 남학생은 1,725명, 여학생은 1,724명이었다. 조사대상 패널수(3,449명) 대비 청소년 응답 사례수는 2차년도 3,188명(응답율 92.4%), 3차년도 3,125명(응답율 90.6%), 4차년도 3,121명(응답율 90.5%)이었다.

2. 측정도구

1) 학교적응

종속변수인 학교적응은 교칙이나 규정에 대한 적응, 공부에 대한 흥미,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가 진학이나 자신의 특기를 살리는데 적합한지 등 4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나타내기 위해 역점수화 했으며, 학교적응의 문항 신뢰도 α 값이 .705 이었다.

2) 사회적 관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를 부모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로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우선 부모와의 관계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 부모와의 대화와 의사소통으로 측정한 6문항을 이용하였다. 교사와의 관계는 교사의 애정과 관심 및 의사소통 등에 대한 3문항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

와의 관계가 원만함을 의미한다. 또래와의 관계는 학교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측정한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높고 또래관계가 원만함을 의미한다. 모든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는 문항 신뢰도 α 값이 각각 .877, .736, .593 이었다.

3. 자료분석방법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학교진학 과정에서 학교적응의 변화를 추정하고 그 변화에 있어서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해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적용하였다. 학교적응의 기술통계치 분석¹⁾ 결과, 4개년도의 학교적응 변화가 1, 2차년도에 증가하다가 3, 4차년도에 감소하는 비선형적이고 대칭적인 특성을 보이므로 이차함수모형²⁾을 적용하였다. 이차함수모형은 최소 4번의 측정시점이 필요한 비선형모형이기에(Curran, 2007) 본 자료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종단자료에 대한 다층모형은 변화함수를 추정하는 1단계(level 1) 모형과 변화에 있어서 개인차를 설명하는 2단계(level 2) 모형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분석과정은 우선 독립변수를 추가하지 않은 무조건 모형을 통해 시간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함수를 추정하고, 무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그 다음으로 조건모형을 통해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다. 모형의 예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 “〈표 1〉 학교적응, 부모요인, 학교요인의 기술통계치” 참고.

2)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교적응 양상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하에 전체 시점을 중학교와 고등학교 두 시점으로 나누고 각 시점에 대해 각각의 함수를 적용하고 이 함수를 결합하는 Piecewise 함수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자료의 한계로 이 모형을 사용하지는 못했다. Piecewise 함수모형을 적용하려면 두 개의 선형함수를 각각 추정해야 하기 때문에 측정시점이 최소 5개 이상인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차함수모형을 적용하였다.

1) 무조건 모형(conditional model)

1단계(level 1) :

$$Y[t]_i = \pi_{0i} + \pi_{1i}Z[t]_i + \pi_{2i}Z[t]_i^2 + e_i[t], \quad e_i[t] \sim N(0, \sigma^2)$$

위 식에서 $Y[t]_i$ 는 개인 i 의 시점 t 에서의 학교적응 측정치를 나타내며, $Z[t]_i$ 는 개인 i 의 측정시점에 따른 시간 코딩값이 된다. 시간변수 Z 의 첨자 i 는 개인에 따라서 측정회수와 측정시점이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낸다. 초기시점이 0으로 코딩된 경우 π_{0i} 는 개인 i 의 초기값(initial status), 즉 시점이 0일 때 Y 에 대한 기댓값을 나타내고, π_{1i} 는 시점이 0일 때의 순간 변화율(change rate), π_{2i} 는 변화의 변화율(acceleration/deceleration in change)을 의미한다. $e[t]_i$ 는 시점 t 에서의 개인 i 에 대한 오차이며, $e[t]_i \sim N(0, \sigma^2)$ 는 $e[t]_i$ 가 평균 0, 공분산 σ^2 을 가지는 정상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나타낸다.

2단계(level 2) :

$$\begin{aligned} \pi_{0i} &= \beta_{00} + r_{0i} \\ \pi_{1i} &= \beta_{10} + r_{1i} \\ \pi_{2i} &= \beta_{20} + r_{2i} \end{aligned} \quad \begin{bmatrix} r_{0i} \\ r_{1i} \\ r_{2i} \end{bmatrix} \sim N \left(\begin{bmatrix} 0 \\ 0 \\ 0 \end{bmatrix}, \begin{bmatrix} \tau_{00} & & \\ \tau_{10} & \tau_{11} & \\ \tau_{20} & \tau_{21} & \tau_{22} \end{bmatrix} \right)$$

위 식에서 β_{00} 와 β_{10} , β_{20} 은 각각 초기치와 변화율, 변화의 변화율의 전체평균을 나타낸다. r_{0i} , r_{1i} , r_{2i} 는 초기치, 변화율, 변화의 변화율에 있어서의 개인 i 의 무선 효과(random effect)를 나타낸다. 여기서 r_{0i} , r_{1i} , r_{2i} 는 각각 평균 0, 공분산 τ_{00} , τ_{11} , τ_{22} 를 가지는 정상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나타내고, 초기값과 변화율, 변화의 변화율 사이의 분산-공분산 행렬을 나타낸다.

2단계에서 표시된 무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독립 변수를 추가하여 초기치와 변화율, 변화의 변화율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설명한다.

2) 조건모형(conditional model)

본 연구에서는 시간 의존적 변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건모형에서 1단

계 모형은 무조건모형과 동일하고, 독립변수가 추가된 2단계 모형은 다음과 같다.

2단계 :

$$\pi_{0i} = \beta_{00} + \beta_{01}(\text{성별}) + \beta_{02}(\text{부모}) + \beta_{03}(\text{교사}) + \beta_{04}(\text{또래}) + r_{0i}$$

$$\pi_{1i} = \beta_{10} + \beta_{11}(\text{성별}) + \beta_{12}(\text{부모}) + \beta_{13}(\text{교사}) + \beta_{14}(\text{또래}) + r_{1i}$$

$$\pi_{2i} = \beta_{20} + \beta_{21}(\text{성별}) + \beta_{22}(\text{부모}) + \beta_{23}(\text{교사}) + \beta_{24}(\text{또래}) + r_{2i}$$

* 부모: 부모와의 관계, 교사: 교사와의 관계, 또래: 또래와의 관계를 줄인 것임.

다층모형에서는 독립변수값이 개인 i 에 따라서 뿐 아니라 시점 t 에 따라 변하는 시간변화(time-varying) 변수도 독립변수로 사용이 가능하다(Raudenbush et al., 2004). 그러나 개인이 인지하는 사회적 관계는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 변화에 있어서 차이를 개인차로 설명하고자 성별을 포함하여 사회적 관계를 시간불변(time-invariant) 변수로 가정하였다. 이에 부모, 교사, 친구와의 관계 등 사회적 관계를 독립변수로 2단계 모형에 투입하여 초기치와 변화율, 변화의 변화율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HLM6 프로그램(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Inc.)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기술통계치

본 연구에서는 종단자료의 속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결측치가 증가하여 1차년도 3,434명, 2차년도 3,181명, 3차년도 3,079명, 4차년도 3,055명, 총 12,749건³⁾의 자료가

3) 3,449명 4년치 총 13,796건 중에서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결측치 913건, 학년이 결측치로 처리된 경우 81건, 학령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36건, 기타 변수 결측치 17건 등 1,047건을 제외한 12,749건을 분석에 이용하였음

분석에 이용되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적응은 1차년도(중2) 3.35점, 2차년도(중3) 3.53점, 3차년도(고1) 3.44점, 4차년도(고2) 3.34점으로 선형이 아닌 역U자형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학교적응, 사회적 관계의 기술통계치

구 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학교적응	1차년도(중2)	3,434	3.35	.92
	2차년도(중3)	3,181	3.53	.94
	3차년도(고1)	3,079	3.44	.94
	4차년도(고2)	3,055	3.34	.96
사회적 관계*	부모와의 관계	3,434	3.34	.78
	교사와의 관계	3,434	2.46	.82
	또래와의 관계	3,434	3.75	.82

* : 시간불변변수로 초기치(중2)를 사용하였음.

2. 다층모형

1) 이차함수모형의 적용: 무조건 모형

본 연구에서는 4차년도의 학교적응 평균값이 중 2, 3에는 증가하다가 고 1, 2에는 감소하는 역U자형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시간에 따른 학교적응 변화를 추정하고 그 변화에 있어서 개인차를 추정하기 위해서 비선형모형인 이차함수모형을 적용하였다. 시간값은 중2, 중3, 고1, 고2를 각각 0, 1, 2, 3으로 코딩하였고, 따라서 β_{00} 는 초기치, 즉 중2시점의 학교적응 평균점수를 의미한다. 시간에 따른 학교적응 변화를 추정한 무조건모형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이차함수 모형의 결과

	구 분	추정치	표준오차
고정효과 (fixed effect)	β_{00} (초기치)	3.359 ***	.015
	β_{10} (변화율)	.208 ***	.020
	β_{20} (변화의 변화율)	-.073 ***	.007
무선효과 (random effect)	τ_{00}	.362 ***	
	τ_{11}	.113 **	
	τ_{22}	.011 **	
상관계수	τ_{10}	-.077	
	τ_{20}	-.119	
	τ_{21}	-.838	

*: p<.05, **:p<.01, ***: p<.001

<표 2>에서 고정효과를 살펴보면, 학교적응 초기치인 중2 시점의 학교적응 평균은 3.359점이며, 초기치와 변화율, 변화의 변화율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에 대해 변화율은 .208로 정적(+)이고 변화의 변화율은 -.073으로 부정적(-)인 것은 학령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적응이 증가하지만 변화율이 감소하여 점차 학교적응이 감소하는 역U자형의 변화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정계수와 학교적응의 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낸 <수식 1>을 통해 구체적으로 계수 값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회귀식을 1차, 2차 미분한 값을 통해서 초기치와 변화율, 변화의 변화율의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수식 1> 시간에 따른 학교적응 변화의 회귀식

$$E(Y) = \pi_{0i} + \pi_{1i}Z[t]_i + \pi_{2i}Z[t]_i^2 = 3.359 + 0.208Z[t]_i - 0.073Z[t]_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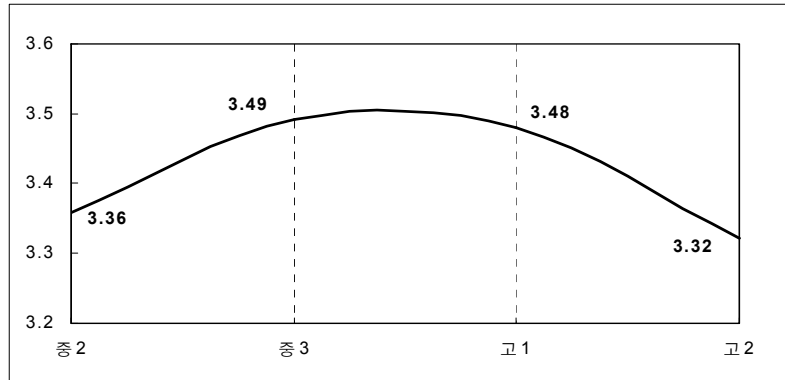
$$\frac{d}{dt} = \pi_{1i} - 2 \times \pi_{2i}Z[t]_i = 0.208 - 0.146Z[t]_i$$

$$\frac{d^2}{dt^2} = -2 \times \pi_{2i} = -0.146$$

우선 절편 3.359은 $Z[t]_i=0$ 일 때의 Y 의 기댓값을 의미하고, 1차년도 $Z[t]_i$ 의 값이 0이므로 절편은 초기치(initial status) 즉, 중2시점의 학교적응 평균을 의미한다. 1차 미분한 두 번째 식은 2차함수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이자 $Z[t]_i$ 시점에서의 Y 의 순간변화율이므로, 이때 π_{1i} 는 중2시점($Z[t]_i=0$)에서의 초기변화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Y 의 변화율은 $Z[t]_i$ 의 함수이므로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세 번째 식에서 2차 미분한 값 $-2\pi_{2i}$ 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상수값으로, 시점이 1년 변화할 때 학교적응의 변화율이 2차항의 계수 π_{2i} 의 2배한 값만큼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차함수모형이 변곡점에 대해 대칭인, 즉 학교적응이 증가할 때의 속도와 감소할 때의 속도가 같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2시점에서 학교적응의 초기변화율은 .208이며 1년이 지날 때마다 .146만큼씩 변화율이 감소하여 3차년도에는 변화율이 음수값으로 바뀌어 학교적응이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표 2〉의 무선효과를 살펴보면, 초기치와 변화율, 변화의 변화율의 분산값이자 무선효과를 나타내는 $\tau_{00}, \tau_{11}, \tau_{22}$ 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적응의 변화, 즉 초기치와 변화율, 변화의 변화율에 있어서 개인차이가 존재하고, 2단계 모형에서 이러한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변수를 추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개인에 따라 학교적응이 더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청소년이 있는 반면 학교적응이 완만하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청소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개인의 어떤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그 차이를 조건모형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표 2〉의 마지막 부분인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초기치와 변화율, 변화의 변화율의 공분산을 나타내는 $\tau_{10}, \tau_{20}, \tau_{21}$ 이 모두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치와 변화율의 관계(τ_{10})가 부적(-)이므로 중2시점에서 학교적응이 높았던 청소년은 낮았던 청소년에 비해 중2시점에서 적게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초기치와 변화의 변화율의 관계(τ_{20})도 부적(-)이므로 중2시점에서 학교적응이 높았던 청소년은 낮았던 청소년에 비해 학교적응의 변화폭이 작아 완만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변화율과 변화의 변화율의 관계(τ_{21})도 부적(-)이므로 중2시점에서 변화율이 큰 청소년은 변화율이 작은 청소년에 비해 이후 학교적응이 더 작은 폭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표본에 대해 시간에 따른 평균적인 학교적응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시간에 따른 청소년의 평균적인 학교적응 변화

2) 조건모형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중3-고1 시점을 정점으로 하여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역U자형을 보이고 이러한 변화가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난다면, 이러한 변화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설명변수를 2단계 모형에 투입하였다. 설명변수인 사회적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를 포함하였다. 성별과 사회적 관계를 투입하여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조건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우선 초기치인 중2시점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성별,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모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일수록 학교적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교사·또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즉 중2시점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원만할수록 학교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학교적응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고정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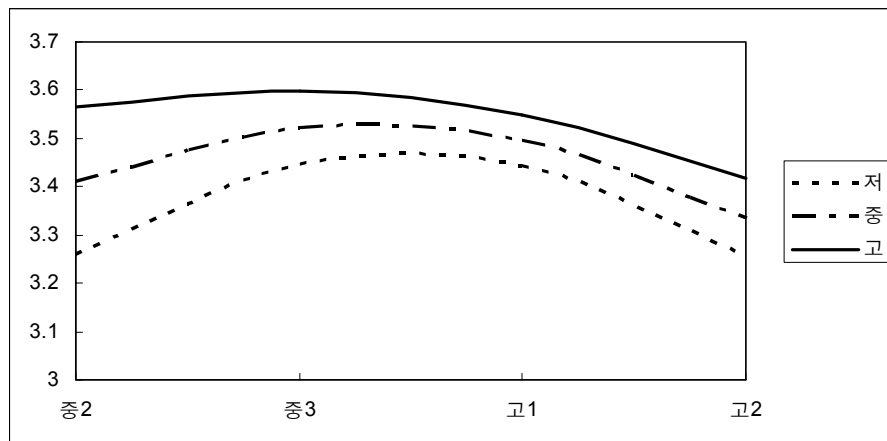
구 분	학교적응 초기치		변화율		변화의 변화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절편	3.412 ***	.020	.179 ***	.029	-.068 ***	.009
성별(여자)	-.105 **	.029	.056	.041	-.010	.013
부모와의 관계	.157 ***	.020	-.035	.028	.007	.009
교사와의 관계	.186 ***	.018	-.124 ***	.025	.032 ***	.008
또래와의 관계	.301 ***	.018	-.069 **	.025	.013	.008

* : $p < .05$, ** : $p < .01$, *** : $p < .001$

학교적응의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사와의 관계와 또래와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요인 모두 초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이 부적(-)이므로, 교사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중2시점에서 학교적응이 더 완만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학교적응의 변화의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사와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초기치와 변화율, 변화의 변화율을 종합해서 해석해 보면,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한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중2시점의 학교적응 점수가 높고 중3이 되면서 학교적응이 완만히 증가하였다가 고1 이후 완만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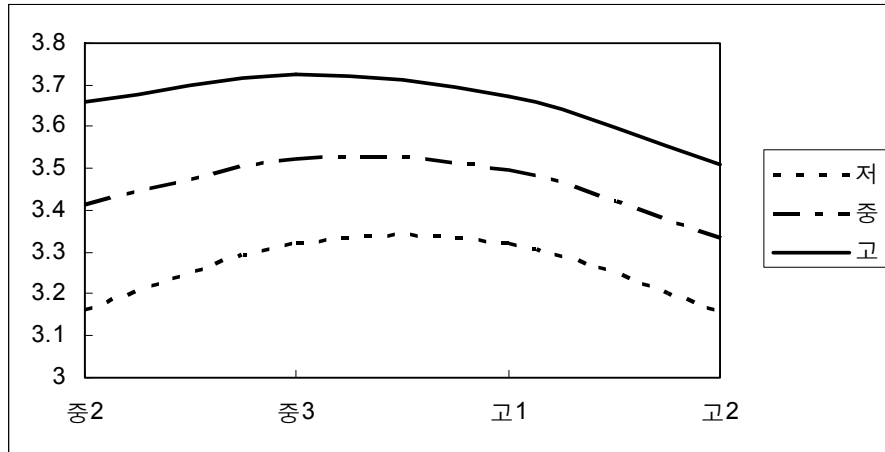
사회적 관계에 따른 학교적응 변화는 다음의 그래프⁴⁾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먼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한 집단은 중2시점의 학교적응이 높고 학령변화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집단은 중2시점의 학교적응이 낮고 학령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초기치인 중2시점에 학교적응의 수준이 학령변화에도 유지되지만, 그 차이는 점점 감소하다가 고등학교 진학이후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교사와의 관계에 따른 학교적응 변화

4) 교사와의 관계와 또래와의 관계가 각각 평균인 집단을 “중” 집단으로 하고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높은 집단을 “고” 집단,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낮은 집단을 “저” 집단으로 구분함.

또래와의 관계에 따른 세 집단의 학교적응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또래와의 관계에 따른 학교적응 변화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한 집단은 중2시점의 학교적응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지만, 변화의 변화율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치인 중2시점에 학교적응수준이 학령변화에도 유지되고, 그 차이도 일정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학교진학과정에서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부모·교사·또래와의 사회적 관계가 학교적응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비선형 이차함수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 증가에 따른 학교적응 변화는 역U자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

2에서 중 3으로 학령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적응 점수가 증가하지만 변화율이 감소하여 고1을 지나면서 학교적응점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시간변화에 따라 학교적응은 변화하며 특히 학교진학과정에서 학교적응의 변화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학업동기 감소(Eccles et al., 1998), 성적저하(Alspaugh, 1998), 과외활동 참여 저하(Blyth et al., 1983; Isakson & Jarvis, 1999 재인용) 등 학교생활상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학교적응 변화에 있어서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변수로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중2시점의 학교적응 초기치에는 모든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교사,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정폭력과 학교적응이 부적인 상관관계에 있고(김희수, 2005),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일수록(최지은·신용주, 2003; 강유진·문재우, 2005; 장신재·양혜원, 2007), 친구관계가 지지적이고 친밀할수록(최지은·신용주, 2003), 교사와의 관계가 지지적이고 친밀할수록(최지은·신용주, 2003; 정규석, 2004)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는 선행연구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중2에서 고2까지 4년간의 학교적응 변화에는 교사와의 관계와 또래와의 관계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대체로 학교적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한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학교적응이 전 시기에 있어서 높을 뿐만 아니라 보다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학교생활흥미에서 학업성적까지 영향이 이어진다는 이정은·조미형(2007)의 연구결과로 볼 때, 교사와의 지지적인 관계 형성이 학교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한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학교적응은 전반적으로 높지만 학령변화에 따라 변화 정도의 차이(변화의 변화율)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학교적응 변화에 대한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지지를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학업성적과 출석률이 좋고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의 결과(Felner, Ginter, & Primavera, 198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변화가 중2에서 중3까지 증가하다가 고등학교에 진

학하면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진학으로 달라진 환경에 대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즉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제언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최근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학교진학 과정을 없애고 7~12학년 체계로 가고 있는 학교도 있으며, 고등학교 진학 후 원활한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신입생 지원센터를 두기도 한다(Schumacher, 1998; Mizelle, 1999; Akos & Galassi, 2004). 또한 진학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어려움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Smith, 1997), 진학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학업성취도와 고등학교 중퇴율(dropout rates)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Morgan & Hertzog, 2001; Smith, 2006 재인용; Bottoms, 2002; Cauley & Jovanovich, 2006 재인용).

본 연구는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종단적으로 청소년의 학교적응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학교진학과정에서 학교적응의 변화 형태를 살펴보고, 학교적응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우선 학교적응의 변화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요인은 살펴보았지만, 고등학교 진학 이후의 학교적응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밝히지는 못하였다. 둘째, 변수 설정에 있어서 초기치의 개인차만 고려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셋째, 2차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하였고, 또한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충분히 반영된 변수를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학교적응 양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학교진학에 따른 학교적응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학교 변인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로 이러한 학교적응변화 양상에 맞춰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실천적인 연구들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유진·문재우(2005).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요인의 영향 :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1호, pp. 283-361.
- 김희수(2005).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폭력 수준이 청소년의 불안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1호, pp. 109-132.
- 문은식(2005).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제19권 제4호, pp. 1087-1108.
- 송운용·곽수관(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체계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제18권 제3호, pp.107-129.
- 유안진·이점숙·서주현(2004). 청소년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9권 제3호, pp. 161-180.
- 이경아·정현희(1999).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과 심리치료*, 제11권 제2호, pp.213-226.
- 이규미(2005).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제2호, pp.383-398.
- 이정은·조미형(2007). 남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3호, pp. 79-112.
- 장신재·양혜원(2007). 부모-자녀관계, 우울 및 공격성과 학교적응 간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2호, pp. 5-29.
- 정규석(2004). 사회적 관계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제1호, pp. 235-252.
- 최지은·신용주(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제2호, pp. 199-210.
- 한국아동학회·한솔교육문화연구원(2002). *아동발달백서* 2001.
- 헤럴드경제 2005. 9. 13일자 기사 : 학업포기 고교생 하루 76명.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5/09/13/200509130072.asp(2007. 12. 15).
- Akos, P. & Galassi, J. P.(2004). Middle and high school transitions as viewed by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Professional School Counselling*, Vol. 7 No.

4, pp. 212-221.

- Alspaugh, J. W.(1998). Achievement loss associated with the transition to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92 No. 1, pp. 20-25.
- Anderman, E. M., Maehr, M. L., & Midgley, C.(1999). Declining motivation after the transitio to middle school: Schools can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ducation*, Vol. 32, pp. 131-147.
- Anderson, L. W., Jacobs, J., Schramm, S., & Splittgerber, F.(2000). School transitions: Beginning of the end or a new begin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33, pp. 325-339.
- Baker, R. W. & Siryk, B.(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1, No. 2, pp.179-189.
- Barone, C., Aguirre-Deandreis, A. I., & Trickett, E. J.(1991). Means-end problem-solving skills, life stress, and social support as mediators of adjustment in the normative transition to high school.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19, pp. 207-225.
- Berndt, T. J., & Keefe, K.(1995). Friends' influence on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Child Development*, Vol. 66 No. 5, pp. 1312-1329.
- Berndt, T. J., & Mekos, D.(1995). Adolescents' perception of the stressful and desirable aspects of the transition to junior high school.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Vol. 5 No. 1, pp. 123-142.
- Berndt, T. J., Miller, K. E., & Park, K.(1989). Adolescents' perceptions of friends' and parents' influence on aspects of their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9, pp. 419-435.
- Birch, S. H., & Ladd, G. W.(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35, pp. 61-79.
- Blyth, D. A., Simmons, R. G., Bush, D.(1978). The Transition into Early Adolescence: A Longitudinal Comparison of Youth in Two Educational Contexts. *Sociology of Education*, Vol. 51 No. 3, pp. 149-162.

- Bronstein, P., Duncan, P., D'Ari, A., Pieniadz, J., Fitzgerald, M. Abrams, C. L., Frankowski, B., Franco, O., Hunt, C., & Cha, S., Y. O.(1996). Family and parenting behaviors predicting middle school adjustment: A longitudinal study. *Family Relations*, Vol. 45 No. 4, pp. 415-426.
- Brown, B. B.(1990). Peer groups and peer cultures. In S. S. Feldman & G. R. Ellio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pp. 171-196).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rlson, E. A., Sroufe, L. A., Collins, W. A., Jimerson, S., Weinfield, N., Hennighausen, K., Egeland, B., Hyson, D. M., Anderson, F., & Meyer, S. E.(1999). Early environmental support and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school adjustment in middle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14 No. 1, pp. 72-94.
- Cauley, K. M. & Jovanovich, D.(2006). Developing an effective transition program for students entering middle school or high school. *The Clearing House*, Vol. 80 No. 1, pp. 15-25.
- Chung, H., Elias, M., & Schneider, K.(1998). Patterns of individual adjustment changes during middle school transitio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36, pp. 83-101.
- Curran, P.(2007). *SAS를 적용한 다층모형(Multilevel Models Using SAS)*. 2007 고급 연구방법론 워크샵 시리즈 I 자료집.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Dubois, D. L., Eitel, S. K., & Felner, R. D.(1994).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6 No. 2, pp. 405-414.
- Eccles, J. S., Midgley, C., Wigfield, A., Buchanan, C.M., Reuman, D., Flangan, C., & MacIver, D.(1993). Development during adolescence: The impact of stage-environment fit on adolescents' experiences in schools and families. *American Psychologist*, Vol. 48, pp. 90-101.
- Eccles, J. S., Wigfield, A., & Schiefele, U.(1998). Motivation to succeed. In W.

- Damon(Series Ed.) & N. Eisenberg(Volume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5th ed.),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pp. 1017-1095). New York: Wiley.
- Felner, R. D., Primavera, J., & Cauce, A. M. (1981). The impact of school transitions: A focus for preventive effor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9 No. 4, pp. 449-459.
- Hirsh, B. J. & DuBois, D. L. (1992). The relation of peer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symptomatology during the transition to junior high school: A two-year longitudina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0 No. 3, pp. 333-347.
- Isakson, K. & Jarvis, P.(1999). The adjustment of adolescents during the transition into high school: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8 No. 1, pp. 1-26.
- Kurdek, L. A. & Sindair, R. J.(1998). Relation of eighth graders' family structure, gender, and family environment with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80 No. 1, pp. 90-94.
- Ladd, G. W.(1990). Having friends, keeping friends, making friends, and being liked by peers in the classroom: Predictors of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Vol. 61, No. 4, pp. 1081-1100.
- Lankford, H., Loeb, S., & Wyckoff, J.(2002). Teacher sorting and the plight of urban schools: A descriptive analysis.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Vol. 24 No. 1, pp. 37-62.
- Mizelle, N. B.(1999). *Helping middle school students make the transition into high school*. Champaign, IL: ERIC Clearinghouse on Elementar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432411).
- Mizelle, N. B., & Irvin, J. L.(2000). Transition from middle school to high school. *Middle School Journal*, Vol. 31, pp. 57-61.
- Schiller, K. S.(1999). Effects of feeder patterns on students' transition to high school. *Sociology of Education*, Vol. 72, pp. 216-233.

- Schumacher, D. (1998). *The transition to middle school*. Champaign, IL: ERIC Clearinghouse on Elementar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422119).
- Scott, L. S., Rock, D. A., Pollack, J. M., & Ingels, S. J. (1995). *Two years later : Cognitive gains and school transitions of NELS:88 eighth graders*. Washington, DC: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
- Seidman, E., Allen, L., Aber, J. L., Mitchell, C., & Feinman, J.(1994). The impact of school transition in early adolescence on the self-system and perceived social context of poor urban youth. *Child Development, Vol. 65*, pp. 507-522.
- Sheridan, S. M., Buhs, E. S., & Warnes, E. D. (2003). Childhood peer relationships in contex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41 No. 4*, pp. 285-292 .
- Simmons, R. G. & Blyth, D. A.(1987). *Moving into adolescence: The impact of pubertal change and school context*. New York: Aldine De Gruyter.
- Smith, J. B.(1997). Effects of eighth-grade transition programs on high school retention and experience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90*, pp. 144-157.
- Smith, J. S.(2006). Examining the long-term impact of achievement loss during the transition to high school. *The Journal of Secondary Gifted Education, Vol. 17 No. 4*, pp. 211-221.
- Wigfield, A., Eccles, J. S., Mac Iver, D. Reuman, D., & Midgley, C.(1991). Transitions during early adolescence: Changes in children's domain specific self-perceptions and general self-esteem across the transition to junior high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7*, pp. 552-566.
- Woolley, M. E., & Grogan-Kaylor, A.(2006). Protective family factors in the context of neighborhood: Promoting positive school outcomes. *Family Relations, Vol. 55*, pp. 94-104.

ABSTRACT

The School Adjustment Trajectory during the Transition from Middle School to High School

Cho, Mi-Hyoung* · Lee, Jeong-E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rajectory of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from middle school to high school, and to examine the social relationships that contribute to this trajectory. The Korea Youth Panel Survey(KYPS), from the first-year to 4th-year was the source of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adolescents' levels of school adjustment increased from the 2nd grade to the 3rd grade in middle school and decreased from the 1st grade to the 2nd grade in high school, indicating a reverse-U shape. The results also revealed that peer relationships and teacher relationships have an influence on the trajectory of school adjustment.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intervention should be offered to improve the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who are exposed to stressful environments during the transition into high school.

Key Words : school adjustment, school transition, adolescents, social relationship

투고일 : 12월 16일, 심사일 : 4월 15일, 심사완료일 : 4월 15일

* Researcher, Center for Social Welfare Research(Yonsei University)